

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미국의 IPTV가입자 규모전망(2005~2010)

(단위: 천가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CAGR 2005~2010
총 IPTV 가입가구	263	623	1,867	3,752	6,550	10,684	109.8%
TV시청 가구 중 IPTV 점유율	0.2%	0.5%	1.6%	3.1%	5.3%	8.6%	

자료: Gartner(2006. 7.)

참고자료:

- [1] FCC, 12th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Video Competition, 2006. 3.
- [2] ____, High-Speed Services for Internet Access: Status as of June 30, 2005, 2006. 4.
- [3] Gartner, Forecast: IPTV Subscribers and Service Revenue, North America 2004 ~2010, 2006. 7.
- [4] OECD, Broadband subscribers per 100 inhabitants in OECD countries, June 2005, (www.oecd.org/sti/ICTindicators)
- [5] Paul Budde Communication, USA-Broadband Market-Fiber to the Home(FttH/FttP), 2006. 7.
- [6] Verizon, 1st Quarter 2006 Earnings Conference Call, 2006. 5.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 현황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원 권성미
(T. 570-4009, smkwon@kisdi.re.kr)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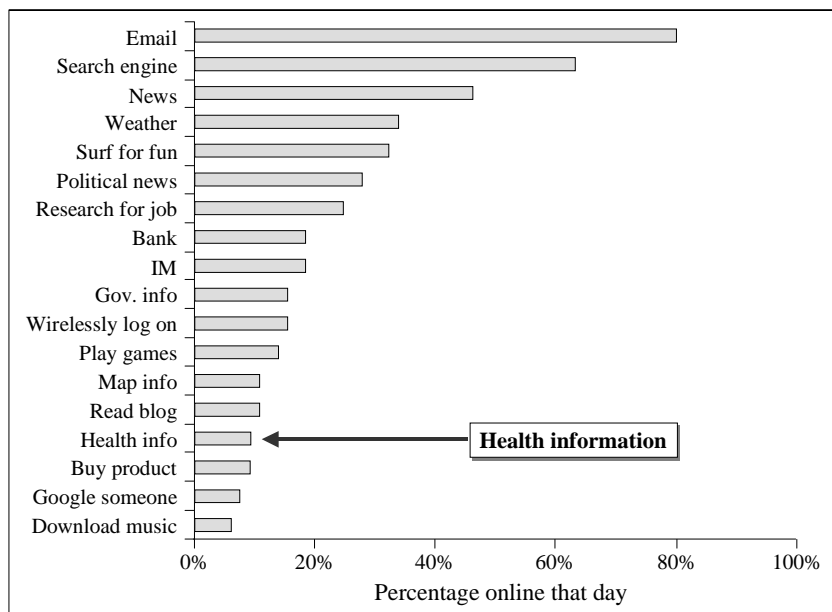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최근에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¹⁾는 최근 『Finding Answers Online in Sickness and in Health』(2006년 5월 2일) 보고서를 통

해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온라인 건강정보 이용 추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이다.

2. 주요내용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의 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건강 정보를 찾을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3월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활용 인구의 12퍼센트(약 1,700만 명)가 주요 질환을 앓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도울 때 인터넷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2002년 1월에는 10 퍼센트(약 1,100만 명)의 사람들이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비율은 거의 유사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난다. 더욱이 2005년 3월 조사에서는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

[그림 1]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요 목적별 이용 비율



자료: Lee Rainie.(200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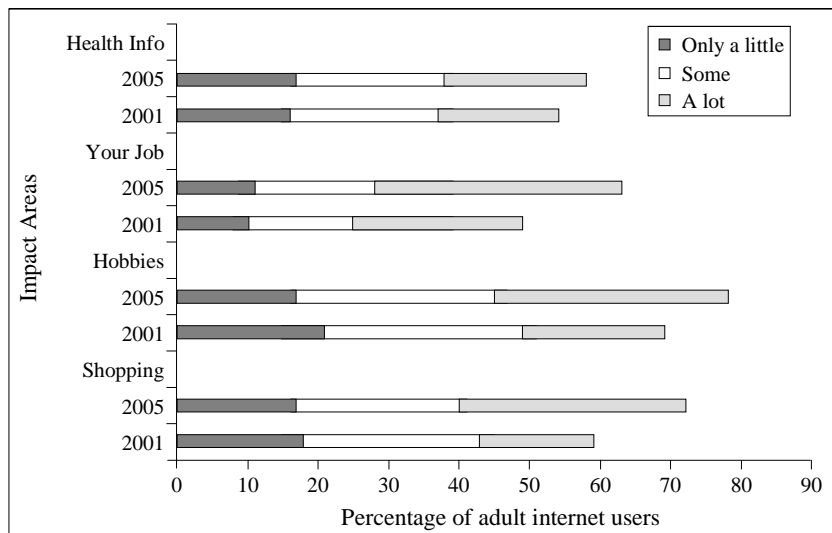
- 1)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는 가족, 공동체, 직장, 가정, 일상생활, 교육, 건강, 시민 생활과 정치적 활동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력을 연구하여 보고서들을 발간한다. 이를 통하여 가상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세계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인터넷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사람들 중 7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접 주요 질병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또한 2005년 12월 조사에서는 인터넷 활용 인구의 20 퍼센트가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정보를 얻는 방식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넷 활용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건강정보 획득 비율도 높아지고는 있지만, 인터넷은 여전히 쇼핑, 취미생활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비중이 높다.

건강정보를 찾기 위한 인터넷 활용이 다른 목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고 해서 건강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력이 다른 부문보다 낮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아마도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의료 정보를 찾는 사람보다 최신 DVD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수적으로는 훨씬 많겠지만, 실생활에서의 영향력은 전자가 훨씬 클 것이다.

[그림 2] 주요 부문에서의 인터넷 영향력 비교



자료: Mary Madden.(2006:2)

주요한 삶의 결정요인에 대한 12월의 설문 조사 결과는 건강과 관련한 결정에 있어 인터넷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제공해준다. 설문 조사에서는 우선 응답자에게 지난 2년 동안 주요 질병이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였다. 그리고 있다면, 인터넷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도 질문하였다. 그 중에서 인터넷이 결정적인 혹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e-caregiver”에게 인터넷의 특정한 활용 목적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36퍼센트의 e-caregiver는 인터넷을 통해 주요 질환을 앓고

있는 주변 사람을 위한 조언이나 지원 방안을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34퍼센트의 e-caregiver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26퍼센트는 정보를 찾고 선택사항들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단지 6퍼센트의 e-caregiver만이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나 조언을 찾아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91퍼센트의 e-caregiver는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e-caregiver에게 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caregiver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원의 출처에 대한 설문에서 58퍼센트의 e-caregiver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터넷을 꼽았다. 단지 38퍼센트만이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오프라인상의 정보원을 꼽았다. e-caregiver는 의료기관의 웹사이트, 온라인상의 의료 정보나 조언, 자신의 정확한 상태에 대한 검색, 의료 배경지식 및 정보, 국가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저널, 암을 비롯한 특정 질환을 다루는 모임 등을 주요 정보원의 예로 들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와 정보원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건강정보를 찾는 데에 인터넷이 얼마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광범위한 정보원은 의료 진단이나 치료 혹은 특정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서부터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나 치료에 대한 조언이나 조정 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은 시간적 제약 없이 건강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온라인 건강 정보를 결정적인 정보원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3. 결 어

인터넷을 활용하여 건강정보를 찾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려는 개인이나 의료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인터넷을 활용한 건강 정보 검색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의학 정보 검색은 물론 다양한 인터넷 카페 활동을 통하여 건강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알권리가 향상되면, 이는 곧 의료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처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향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단순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데에서 나아가 원거리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Health의 도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1] Lee Rainie, Blogs and Health Care, 2006. 3. 21.
- [2] Mary Madden, Internet penetration and impact, 2006. 4.

[3] Nary Madden and Susannah Fox, Finding Answers Online in Sickness and in Health, 2006. 5. 2.

[4] <http://www.pewinternet.org/index.asp>

밀리미터파 개념 및 동향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주임연구원 윤두영
(T. 570-4396, dy0411@kisdi.re.kr)

1. 개 요

최근 정보통신부는 UWB와 더불어 60GHz대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분배, 고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UWB와 달리, 밀리미터파 기술은 아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두 기술은 각각 UWB가 주파수 공유 방식을, 밀리미터파가 활용이 미진한 주파수 활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점차 희소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주파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밀리미터파에 대한 개념, 기술 및 활용 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2. 기술 개요

전파는 “3,000GHz 이하의 전자기파”로 정의되며, 밀리미터파는 일반적으로 그 가운데 30~300GHz 대역으로서 밀리미터(mm) 단위의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밀리미터파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기존의 전자회로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대역에서는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의 설계가 이루어져 왔으나, 밀리미터파의 경우는 컨트롤 방식이 여의치 않아 적절한 활용방식이 없어 주파수 활용도가 미미했다.

밀리미터파의 주파수로서의 장점이라면 전파의 특성상 파장이 짧아 안테나 및 기기의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고 대역폭을 넓게 사용할 수 있어 정보량을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근거리통신에 적합하고 주파수 재사용율이 높은 점을 언급할 수 있다. 반면 단점이라면 매우 강한 직진성으로 장거리 통신에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점, 대기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강우, 대기분자, 강설 등 대기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아 감쇄가 심하여 지리적 위치, 기후, 지형, 계절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장·단점으로 인해 밀리미터파는 점대점